

‘발견’과 포옹(抱擁): 20세기 전반기 조선 근대문학을 바라보는 중국 지식인들의 시선*

- 번역소설집 『山靈-朝鮮臺灣小說集』과
『朝鮮短篇小說選』을 중심으로 -

왕염려(王艷麗)**

〈차 례〉

- 서론: 번역과 조선 근대문학의 ‘발견’
- 본론:
 - ‘식민지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 『山靈-朝鮮臺灣小說集』
 - ‘만주’라는 타자: 『朝鮮短篇小說選』
- 결론: ‘발견’에서 ‘포옹(抱擁)’까지

[국문초록]

이 글은 1930~1940년대에 번역된 조선 근대 문학작품을 다룬 중국 지식인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근대 이후 조선문학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생각을 조명하고자 한다.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약소민족’과 프로문학의 번역을 통해 중국 내 계급 문제를 초국가적 문제로 인식하였고,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연대’를 강조하며 세계문학을 구상하고, 그 속에 조선문학을 포함하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지식인들은 전근대적 의식을 탈피하고 하나의 독자적 민족 문학으로서 ‘조선 문학’을 발견하였으며, 나아가 조선문학을 번역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과 조선인’을 운명공동체로서 ‘포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발견과 포옹(抱擁)’은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조선문학 번역 작업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

[주제어] 조선 근대 문학, 중국어 번역, 『山靈-朝鮮臺灣小說集』, 『朝鮮短篇小說選』

* 이 글은 2004년 7월 24일-26일에 개최된 ‘인하대 개교 7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음. 관련 연구는 한국국제교류재단 2023년도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KF 1023000-1878)

** 중국 길림(吉林)대학교 부교수

1. 서론: 번역과 조선 근대문학의 ‘발견’

한·중 양국은 수천 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고 서로의 문학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근대문학에 대한 상호 번역 작업은 양국의 문화 교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특히 19세기 전반기에 중국에서 번역·소개된 조선(한국) 근대문학¹⁾ 작품은 양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전근대적 인식을 벗어나 조선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작품들은 한·중 문화 교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조선 근대문학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²⁾ 그동안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아직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 중국 학자 신선옥의 지적처럼 기존 연구는 장혁주와 좌익 문학 번역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당시 번역된 조선 문학 작품의 다양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³⁾ 둘째,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주력한 나

1) 서술상의 편의로 이하 모두 ‘조선근대문학, 조선근대소설’로 칭한다.

2) 중국 학계의 경우 1951년 1월 28일 王璠가 『광명일보』에 실렸던 「진실의 거울 - 신문학작품 몇 편을 통해 본 중조(中朝)인민의 우의」라는 평론은 이 과제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고, 그 후 1990년대가 되어서야 몇몇 연구자. 예컨대 邹振環(1995), 楊昭全(2004), 金鶴哲(2009) 등에 의하여 관련 연구가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성과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00년이후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해 왔는데, 그 동안 축적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신정호, 이등연, 송진한, 「조선 작가 소설과 중국 현대문단의 시각」, 『중국소설논총』 제18집, 2003.
- 김장선,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의 장혁주 작품 번역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제51집, 2016
- 한인혜, 「일제 강점기 중국에서 번역된 조선 문학 - 중화적 세계문학 개념과 조선 문학의 위치」, 『비평문학』 24호, 2017.
- 김주현,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 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81호, 2017.
- 신선옥, 「민국시기 중국에서의 조선문학 비평 양상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56집, 2018.
- 신선옥, 「龍泉의 조선문학 비평 연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4호, 2019.1
- 김장선, 「만주국 문학장에 이입된 조선문학 - ‘조선단편소설선’ 출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62집, 2019.
- 이동매, 김성, 왕염려, 「번역사회학시각에서 본 중국에서 장혁주문학의 번역 및 수용양상-부르디외의 사회학이론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30권 1호, 2022.

머지 번역된 작품들의 구체적인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는 근대 이후 중국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근대적 중화주의 관점에 의존하여 조선 근대문학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세기 전반기는 중국이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번역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자 한 시기였다. 조선 문학이 ‘타자’로서 중국 지식인들의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1949년까지 중국에서 번역·소개된 조선 근대문학 작품은 소설, 시, 희곡, 평론, 아동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약 100종에 이른다. 그중 근대소설이 양적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인지도 또한 높았다. 초기에는 조선 애국 청년들이 주로 번역을 담당했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 후평(胡風), 예권젠(葉君健) 등 중국의 중견 지식인들이 일본어를 매개로 번역을 시작하면서 조선 근대문학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였다.

조선 근대문학 작품의 번역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약소민족’, 항일 저항운동, 세계주의(무산계급의 연대) 이데올로기 등 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1930년대 좌익 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번역 작업은 ‘약소민족’ 문학 번역의 일환으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경계를 넘어 근대 이후 세계를 바라보는 중국 지식인들의 시각과 행동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근대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세계를 동등하게 바라보며, 중국과 유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국가 및 민족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모색한 결과였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조선은 중국인들에게 ‘형제 국가’,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근대 이후 양계초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찬사, 그리고 1910년 이후 조선의 망국과 항일 서사를 다룬 다수의 중국 지식인들의 작품

3) 신선옥, 「민국시기 중국에서의 조선문학 비평 양상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56집, 2018, 93쪽.

은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또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조선어에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매개로 조선 문학을 번역·소개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행동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번역 과정을 통해 중국 지식인들이 조선 근대문학을 독자적인 민족문학으로 인식하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글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20세기 전반기에 중국에서 번역된 조선문학의 수용 양상을 당시 지식인들이 남긴 독후감(인상담)을 중심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번역물의 수용 양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많은 연구가 독후감을 단순한 개인적인 감상문으로 치부하여 소홀히 다룬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조선 문학에 대해 여전히 낯설고 무지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작성된 문학 평론은 단편적이고 편협한 인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평론문’과 달리, 독후감은 특정 작품을 읽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기록한 자료로, 개인적인 독서 취향을 반영하더라도 당시 지식인들의 진솔한 생각과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조선 근대소설 번역물에 대해 중국 지식인들이 남긴 인상담(독후감)은 주로 두 종의 단행본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관내 지역(즉, 산해관 이남 지역)에서 후평이 번역한 『산령·조선·대만 소설집』(1936, 상해문화출판사, 이하 ‘산령(山靈)’로 칭함)이고, 또 하나는 관외 지역(위만주국)에서 왕허(王赫)가 편집한 『조선 단편소설선』(1941, 新京新時代社)이다. 이들 단행본은 신문이나 잡지에 비해 더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목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두 단행본은 20세기 전반기 조선 근대문학의 중국어 번역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이 두 단행본을 통해 ‘조선 문학’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일부 중국 지식인들은 ‘조선 문학’과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진솔한 생각을 ‘소감’의 형식으로 솔직히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조선 근대문학이 중국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발견’되고 읽혔는지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대상을 통해 당시 중국에서의 조선 문학의 위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상기 두 단행본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담론을 ‘자세히 읽기’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이후 조선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생각과 인식의 내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의 조선문학 번역·수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당시 중국에서 차지했던 조선문학의 위상을 재조명하며, 나아가 한·중 양국의 문학 교류를 촉진하는 데 의의를 둔다.

2. 본론

1) ‘식민지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 『山靈-朝鮮臺灣小說集』

“비가 내리고 있다. 눈앞의 책상 위에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수호전(水滸傳)』 이고 또 하나는 호풍이 번역한 『산령(山靈)』이다…… 나는 잠을 안 자고 책을 읽기로 해서 전등을 켜다. 『산령』중의 「聲」이라는 작품을 읽고 나서 봤더니 비가 그친 지 꽤 오래된 것 같다…… 불빛이 너무 희미해서 전등 하나 더 켜놓고 이어서 읽었다…. 날이 밝기 전까지 3 편을 더 읽었다.”⁴⁾

위의 인용문은 중국 근·현대 시기 가장 유명한 여성 작가 중의 한 사람인 쇼오홍(蕭紅)의 수필로 그녀가 일본에 체류했을 당시 『산령(山靈)』을 읽던 순간을 담고 있다. 쇼오홍이 『산령(山靈)』을 이국 타향에까지 가져가서 읽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 단행본이 당시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사실 역자인 후평이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책이 중국에서 꽤 많이 알려졌다”⁵⁾라고 직접 밝혔듯이 이 단행본은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번역소설집 중의 하나였다.

4) 蕭紅, 『정감의 파편(感情的碎片)』, 內蒙古人民出版社, 1999, 234쪽.

5) 許俊雅, 「후평의 번역작 ‘산령(山靈)-조선대만단편집’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中國現代文學與韓國:10》, 金炳珉, 李存光 등 편저, 延邊大學出版社, 2014, 217쪽.

[표1] 『산령(山靈)』에 수록된 작품 목록

	제목	원저자	번역자	역작 발표지면 / 발표시간	번역경로 및 원작출처
1	山靈 / 산령	장혁주 (조선)	胡風	《世界知識》2권 10호 (1935.8.1)	일·중 일본:『권이라는 남자』, 개조사, 1934
2	上墳去的男子 / 성묘하러 가는 남자	장혁주 (조선)	胡風	《国聞周報》7.8호, 1936.2월, 3월	일·중 일본:『개조』, 1936
3	初陣 / 초진	이북명 (조선)	胡風	《譯文》신1권 1기 (1936.3.16)	일·중 일본:『문학평론』, 1935.5
4	聲 / 성	정우상 (조선)	梅汝	《時事類編》4권 10호 (1936.5.16)	일·중 일본:『문학평론』, 1935.5
5	送報夫 / 신문배달부	楊達 (대만)	胡風	《世界知識》2권 6호 (1935.6.1)	일·중 일본:『문학평론』, 1934
6	牛車 / 우차	呂赫若 (대만)	胡風	《譯文》중간호 (1935.9.16)	일·중 일본:『문학평론』, 1935.8
7	薄命 / 박명	楊華 (1941)			중·중

위의 [표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단행본 『산령(山靈)』은 장혁주, 이북명, 정우상 등 조선 작가 3명의 작품과 대만 작가의 단편소설 3편을 포함하여 총 7편의 번역 소설⁶⁾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장혁주의 작품은 2편이 포함되어 있다. 작품집의 제목은 장혁주의 일본어 소설 「산령(山靈)」에서 따왔으며, 부제로 “조선·대만 단편소설집”이 덧붙여졌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작품이 단행본에 수록되기 전에 이미 『世界知識』, 『国聞周報』, 『時事類編』, 『譯文』 등 당시 대표적인 중국 좌익 문예지에 게재되어 독자와 친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작품⁷⁾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6) 그 중 「박명(薄命)」이란 작품은 양화(楊華)라는 대만 작가가 중국 백화문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작품은 모두 다 일본어 원작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7) 후평, 『山靈.序』, 文化生活出版社, 1936, 1쪽.

단행본 『산령(山靈)』의 출간과 수용을 촉진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 책은 1936년 4월에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이듬해 5월에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후 『산령(山靈)』은 황위안(黃源)이 편집한 ‘역문총서(譯文叢書)’에 편입되었다. 재판 표지에는 ‘장혁주 등 저’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보다 명확한 작가 표기를 했다. 『산령(山靈)』의 출간 경위에 대해 역자인 후평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난 해, 『세계지식』 잡지에서 몇 차례에 나누어 약소민족의 소설을 번역하여 게재하기로 하였는데, 나는 동방의 조선과 대만을 떠올리고, 지금 응당 그들의 문학 작품을 중국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중략) 그래서 「산령」을 번역하는 동시 자료를 수집하여 책으로 펴낼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조선어를 잘 모르고, 대만 쪽의 자료를 구하지도 못해서 일본의 출판물에서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⁸⁾

잘 알려져 있듯이, 1920년대부터 중국 번역계에서는 ‘약소민족 문학 번역’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으며, 이는 조선 문학의 중국어 번역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193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무산계급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중국 문단에서도 좌익문학이 두드러지게 활약하게 되었다.⁹⁾ 이러한 상황은 조선 프로문학 경향의 작품들이 더욱 많이 번역되어 중국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산령(山靈)』에 수록

8) 후평, 위의 책, 1쪽.

9) 1930년대 중국 문학장의 양상을 살펴보면, 당시 문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무산계급 풍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로 인해 좌익 경향의 문학작품이 대거 창작·출판되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중국좌익작가연맹(즉, ‘좌련’)과 같은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문학 단체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좌련’은 중국 좌익문학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좌익문학의 대성행을 이끌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즉 ‘좌련’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는 주요 문예지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좌익 경향의 문학작품을 게재하였다. 심지어 당시에는 좌익 작품을 실지 않은 문예지는 독자들의 외면을 받아 판매가 부진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동매, 왕염려, 「번역사회학시각에서 본 중국에서 장혁주문학의 번역 및 수용양상-부르디외의 사회학이론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30권 1호, 2022, 235~236쪽.

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식민지 치하에서의 가난한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묘사하는 모티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뚜렷한 정치적 의식을 가졌던 좌익 진영의 지식인들은 약소민족의 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함으로써 국제 무산계급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중국 프로문학에 일정한 소재와 참조물을 제공하고자 했다. 따라서 식민지 출신 작가들이 창작한 피압박·피착취 민중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들이 중국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 지식인들에게 ‘조선 문학’은 너무나 낯설고 접근하기 어려운 텍스트였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로는 1930년대 일본 문단에서 발생한 소위 “조선의 봄, 식민지 문학의 봄”에 따라 장혁주를 비롯한 다수의 조선 작가와 일부 대만 작가들의 작품이 일본에 유입되면서 가능해졌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조선과 대만 작가들의 작품을 ‘식민지 문학’이라고 불렀지만, 후평은 일본어로 된 이 작품들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식민지 문학’ 대신 ‘약소민족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식민지 문학’과 ‘약소민족 문학’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만 내포하는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식민지 문학’이 일본제국주의가 조선과 대만을 포함한 식민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재발견한 결과물이라면, ‘약소민족 문학’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강의 압박과 침략에 저항하려는 중국의 ‘세계문학 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한다. 즉, 일본에서 ‘식민지 문학’으로 분류되었던 조선과 대만의 문학은 후평 등 당시 중국 좌익 지식인들에 의해 탈식민적 문학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이러한 명칭상의 변화는 중국 문단이 식민지 약소민족의 저항을 통해 제국주의의 지배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의도의 반영이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약소민족’이라는 용어가 국력이 약하고 강대국으로부터 압박과 착취를 받는 나라와 민족을 지칭하며, 근대 이후 반식민지로 전락한 중국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 용어를 최초로 제시했던 천두슈(陳獨秀)는 자신의 글에서 “그들이 서로 타협하면 중국인, 조선인, 시베리아인 등 태평양 연안의 약소민족들은 해방의 희망이

없어질 것이고 피압박의 정도도 심해질 것이다”¹⁰⁾라고 언급하며, 중국과 조선을 동일하게 약소민족으로 분류하였다. ‘약소민족문학’을 연구해 온 중국 학자 송병후에(宋炳輝) 또한 ‘약소민족’의 범위를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¹¹⁾로 규정하였으며, 여기서도 중국은 배제되지 않았다. 천두슈를 비롯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약소민족’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목적은 ‘피압박, 피착취 민족 간의 협력과 연대’¹²⁾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식민 침략을 받는 민족이나 국가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반(反)식민과 반(反)제국주의라는 함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약소민족문학을 번역한 목적은 자신들과 비슷한 운명에 처한 민족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반제·반식민 저항의식을 환기시키며, 약소민족 간의 연대와 공동체적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구상한 ‘세계문학’의 진정한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이 ‘약소민족문학의 번역’을 ‘국수주의적 중화주의’로 해석하는 경향¹³⁾이 있었으며, 이러한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산령(山靈)』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기록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우선, 번역자 후평은 이 작품들을 번역하는 동안 “점점 작품 속 인물에 빠져들게 되고 (...) 작중 인물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분노하였다. 심지어 때로는 마치 전 세계가 지금 막 나의 주변에서부터 함락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¹⁴⁾라고 술회하였다. 여기서 후평이 자신을 작품 속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며 ‘외국’의 이야기를 중국인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는 편협한 일국주의나 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제적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당시 적지 않은 중국 지식인들이 공유하던 정서였다.

예를 들어, 좌련(左聯)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저우강명(周剛鳴)도 『독서

10) 陳獨秀, 「太平洋會議與太平洋弱小民族」, 『新青年』 제9권 제5호, 1921, 2쪽.

11) 宋炳輝, 「弱小民族文學의 譯介與中國文學의 現代性」, 『中國比較文學』, 2002, 59쪽.

12) “열강 자국 국내의 피압박 계급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약소민족이 제휴하여 세계를 개조하기 전에 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박탈과 유린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陳獨秀, 앞의 글, 3쪽.

13) 앞에서 언급했던 한인혜, 김주현의 글에서는 모두 다 이러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14) 후평, 앞의 글, 2쪽.

월간』(4권 7호)의 ‘읽었던 책들’이라는 코너에서 『산령(山靈)』을 읽은 후의 소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감동하여 뜨거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 우울한 선율에 압도되기도 하고, 그 전투적인 열정에 감동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들을 읽고 나니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상당히 밀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저우강명은 『산령(山靈)』 속 등장인물들의 운명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이들의 처지가 중국인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 속 인물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서는 ‘제삼자적이고 관망적인 태도’¹⁵⁾에서 비롯될 수 없는 것으로, 따뜻한 공동체 의식과 깊은 연대감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산령(山靈)』에 대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소감이 단순히 작품의 주제나 사회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문학작품으로서의 예술성과 글쓰기 기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우강명은 같은 글에서 『산령(山靈)』에 수록된 작품들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산령’과 ‘성묘하러 가는 남자’ 두 작품의 저자인 장혁주는 조선에서 자유주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작품에서 식민치하 가난한 농민들이 제국주의자와 봉건 잔여 주의자들의 착취와 탄압을 받아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작품 자체가 곧 식민지 농촌 경제의 해부도(解剖圖)이다. 작가는 절제적인 글쓰기 기법으로 등장인물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마치 한 편의 아름답고 슬픈 산문시를 읽는 느낌을 주었다(중략) 이러한 작품은 국제 문단에서도 보기 드문 수작이고 조선 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하다.¹⁶⁾

15) 한인혜가 저우강명의 글 중에서 “피식민지인들에 대해 느끼는 동정, 중국인으로서 느끼는 위기감과 절박함 가운데서도 제3자적이고 관망자적인 태도와 거리두기의 시선이 드러난다. 중국은 반식민지이긴 하되 아직 망국의 처지로 몰락하지는 않았으며, 여러 곤란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상황보다는 나은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한인혜, 앞의 글, 195쪽.

16) 金柄珉·李存光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6) : 翻譯篇》,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2014, 185쪽.

뿐만 아니라 장수야(張秀亞)와 ‘치인(穉人)’이라는 필명으로 쓴 당시의 문학청년도 『산령(山靈)』에 수록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작품 속 인물의 모습은 딱딱하고 무감정의 정물화(靜物畵)가 아니다 (중략) 작가는 사건의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탐정처럼 이야기의 핵심까지 꿰뚫고 캐내어서 작품에 신기한 매력을 부여해 주었다.

- 張秀亞: 「山靈」(『大衆知識』 1권 6기 “서평”)¹⁷⁾

이 작품은 아주 세밀하고 생동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진지하게 글을 쓰는 수법덕분에 작품의 진실성이 부각된다. 인성(人性)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사회의 죄악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성공적인 작품이다!

- 穉人: 「山靈」을 소개한다」(『新建設』 6권 2기)¹⁸⁾

『산령(山靈)』에는 장혁주의 두 작품 외에도 ‘조선 최초의 노동자 작가’로 불리는 이북명(1908~1988)의 「초진(初陣)」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은 1931년 5월 『조선일보』에 「질소비료공장」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으나, 일본인 검열에 의해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1935년 일본의 좌익 문예지인 『문학평론』에 「초진」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어판이 게재되었다.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후평이 이를 저본으로 삼아 중국어로 번역하여 번역문학 전문지인 『역문(譯文)』에 게재한 후, 1936년에 단행본 『산령(山靈)』에 수록하였다. 이 작품은 구조, 이야기, 인물상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좌익문학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후평이 번역작품을 선정하는 의도와도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습작 수준에 머물렀던 프로문학 소설들과 비교할 때, 「초진(初陣)」

17) 金柄珉·李存光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10): 評論篇》,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2014, 188쪽.

18) 金柄珉·李存光 編, 위의 책, 195쪽.

은 소박한 언어와 짜임새 있는 구조, 성숙한 이야기 전개 방식 등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후평의 번역문 역시 개별적인 번역투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가독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도 당시 지식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음의 예를 보자.

“이 작품은 언어가 소박하지만, 힘과 전투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노동 현장 투쟁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수작이다. 특히 노동자를 매장하는 장면이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 周鋼鳴, 위의 글 중에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 가장 좋은 것은 「初陣」이다. 작가는 주인공이 면서도 방관자가 되어 소설 중의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능숙하게 펜을 놀리면서 명확하게, 투철하게 피 묻은 사실을 드러내게 하였다.

- 張秀亞, 위의 글 중에서

이 작품은 꽤 성공한 수작이다. 매우 간략한 필치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털어 놓았다. (중략) 필치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매우 소박하고 객관적이다. 작가는 자신을 작품 뒤에 숨긴 채로 묘사하고, 심지어는 악역을 묘사할 때도 ‘중오’의 의미가 있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객관적 방관자의 시각으로 자신의 애증을 분명하게 표현하여 독자를 완전히 작품 속으로 끌어들었다. 바로 이 점에서 작품의 우수성이 돋보인다.

- 釋人, 위의 글 중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인지도 높았던 좌익 문예지에 게재된 감상문에는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조선문학 작품을 대하던 진지한 태도가 엿보인다. 당시 지식인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으며 조선 작가들의 작품을 읽었으나,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시

각에 머물지 않고 작가의 글쓰기 능력과 작품의 예술성을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선문학을 쉽게 접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평등한 시각으로 조선문학을 바라보고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형식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요한 점은, 당시 중국에서 조선문학 번역이 이데올로기적 필요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문학’이 독자적인 예술 형식으로서 중국 지식인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1941년 위만주국에서 번역·출간된 『조선단편소설선(朝鮮短篇小說選)』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감상문에서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 ‘만주’라는 타자: 『朝鮮短篇小說選』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사에서 1930년대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로 후평의 『산령(山靈)』을 꼽을 수 있다면, 194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조선단편소설선(朝鮮短篇小說選)』을 들 수 있다. 비록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자가 더 유명하고 영향력이 크지만,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 출판된 유일한 조선 근대소설 번역물 앤솔로지’라는 점에서 『朝鮮短篇小說選』의 가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1941년 위만주국의 ‘수도’新京(新京)에서 왕허(王赫)가 편집한 단행본 『朝鮮短篇小說選』이 출간되었으며, 이 책에는 장혁주를 비롯하여 김동인, 이효석, 이태준, 김사량, 유진오, 이광수 등 조선 작가 7명의 작품 8편이 수록되었다. 이 중 두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위만주국’에서 발행한 잡지에 실린 후 단행본에 재수록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 『朝鮮短篇小說選』에 수록된 작품 목록

	제목	원저자 / 발표시간	번역자	역작 발표지면 / 발표시간	비고 (번역 경로)
1	赭色的山—一个义士的手记 / 붉은 산	金东仁作 (1932)	古辛	《作风》1940	한-일-중
2	李致三 / 이치산	张赫宙作 (1938)	迟夫	《黎明》	일-중
3	猪 / 돈	李孝石作 (1933)	古辛	《作风》1940	한-일-중
4	乌鸦 / 까마귀	李泰俊作 (1936)	罗懋	《大每》	한-일-중
5	山狗 / 산양개	张赫宙作 (1934)	夷夫	《明明》	일-중
6	月女 / 월녀	金史良作 (1940)	邹毅	《周刊朝日》1941	일-중
7	福男伊 / 복남이	俞镇午作 (1941)	羊朔	《周刊朝日》1941	일-중
8	嘉实 / 가실	李光洙作 (1932)	王觉	《作风》1940	한-일-중

이상의 작품 중 김사량의 「월녀」와 유진오의 「복남이」는 일본어 잡지 『週刊朝日』에 실렸던 작품이 중국어로 번역된 후 단행본에 직접 수록된 것들이고, 다른 작품은 다 위만주국에서 발행했던 문예지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모두 다 ‘일본어’ 텍스트를 중역한 것인데 이 점을 통해서 당시 위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중국 지식인들도 후평 등 관내의 지식인들처럼 일본어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조선문학에 접근해야 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예컨대 『朝鮮短篇小說選』의 편집자인 왕허가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었다.

조선과 우리는 역사적이든 지리적이든 오래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게 틀림 없지만 (오늘날) 우리 두 민족 간의 관계는 오히려 매우 소원한 상태이다.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의 생활과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조선에 대하여 오히려 아무 것도 모르는 것만 같다.

- 왕허(王赫), 『朝鮮短篇小說選』 ‘후기’¹⁹⁾

한편 『朝鮮短篇小說選』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하여 중요한 감상문을 남겼던 ‘위만주국’ 문인 첸인(陳因)도 비슷한 말을 하였다.

조선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깝지만, 문학 측면에서는 거의 아무런 교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문학이나 북유럽의 문학까지 다 아는데, 조선 문학에 대해서는 꽤 무지하다고 해야겠다.

-첸인(陳因), 『朝鮮文學略評- 朝鮮短篇小說選』(1941)²⁰⁾

사실상 위만주국의 문단에서는 이른바 ‘선계 문학’이 줄곧 주변화되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²¹⁾ 그렇다면 위만주국의 중국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생소한 ‘조선문학’을 번역하였을까?

잘 알려져 있듯이,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총 14년간 존재했던 ‘위만주국’은 일본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권으로, 정치·외교·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그러나 이 특수한 지역에서도 문필활동을 생업으로 삼는 중국 지식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외국 문학의 번역을 중요한 문필활동의 한 부분으로 삼고 있었다. 이들이 번역한 외국 문학작품 중에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영합하는 국책문학과는 달리, 보다 자유롭고 순수문학적 성격을 띠는 작품들도 존재했으며, 러시아와 일본의 프로문학을 비롯한 진보적인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열악하고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위만주국에서 활동하던 중국 진보 지식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유적이고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문학적 표현을 이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지식인들은 독서회를 조직하여 여러 나라의 진보적인 작품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펼쳤으며, 국민의 민족의식과 저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러 동인지를 창간하여 반제·반식민지적 성격의 작품을

19) 金柄珉·李存光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6): 翻譯篇』,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2014, 260쪽.

20) 金柄珉·李存光 編, 위의 책, 272쪽. 지면의 제한으로 이하 첸인(陳因) 감상문의 내용을 인용할 때 따로 주로 달지 않는다.

21) 劉曉莉, 「東亞殖民主義與文學--以偽滿洲國文壇為中心的考察」, 『學術月刊』 47, 2015, 142쪽.

게재하기도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위만주국에서 발행된 중요한 신문들, 예를 들어 『대동보(大同報)』와 『성경시보(盛京時報)』는 거의 대부분 “사회면(정간)과 문예면(부간)의 분리”²²⁾ 전략을 통해 외적으로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문예면을 통해 자유롭고 반항적인 색채를 띤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만주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중국과 같이 피압박·피식민의 운명에 처해 있던 ‘조선 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면서 조선문학과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朝鮮短篇小說選』이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위만주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朝鮮短篇小說選』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은 위만주국에서 발행된 잡지에 이미 실린 바 있었으며, 번역자들은 위만주국 문단에서 활동하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었다. 특히 이광수의 「가실」을 번역한 왕취예(王覺)는 국민당 지하 조직의 간부이자 신시대출판사(新時代出版社)의 사장 겸 주간으로, 『朝鮮短篇小說選』의 출판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당시 조선문학에 익숙하지 않았던 번역자들은 일본 문단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작품들 중에서 나름의 기준에 따라 번역 대상 작품을 선정하였다. 물론 언어적·인식적 한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작품 선정에 있어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나, 피식민 민족으로서의 공동 운명을 공유하는 약소민족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이러한 작품들을 선정·번역·출판했다고 볼 수 있다.²³⁾ 이러한 점은 1930년대 관내 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선문학 번역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김장선은 『朝鮮短篇小說選』의 출간 과정과 유통경로, 수용 상황 등을 꼼꼼히 고증한 다음 “이 단행본은 위만주국 내의 국민당 지하조직이 대중들의 항일 저항의식을 계몽·선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번역·출판되었다”²⁴⁾는

22) 蔣蕾, 「東北淪陷區中文報紙:文化身分與政治身分的分裂——對偽滿《大同報》副刊叛離現象的考察」, 『社會科學戰線』, 2010, 185쪽.

23) 김장선, 「만주국 문학장에 이입된 조선문학 - ‘조선단편소설선’ 출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62집, 2019, 32쪽 참조.

24) 김장선, 위의 글, 29쪽.

결론을 얻었다. 환언하면 위만주국에서 이입된 조선 문학작품도 결국 진보적 중국 지식인들의 동병상련 정서와 운명공동체 의식의 발로(發露)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만주국과 같은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정서나 의식은 숙명적으로 은폐되어 우회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朝鮮短篇小說選』의 편집자 왕허는 ‘후기’에서 ‘조선’을 중국과 “혈맥 관계를 가진 형제”라고 하면서, “조선문학의 부진”을 비판하는 장혁주의 말에 대하여 “이 ‘부진’은 기교의 부족함이나 의식의 후진함으로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다. 이(조선문학)의 발전을 막는 다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한다”²⁵⁾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왕허의 발언에는 ‘조선’에 대한 위만주국 지식인들의 공동체 인식과 조선의 망국에 대한 동정의 정서가 분명히 담겨 있다.

『朝鮮短篇小說選』은 위만주국에서 꽤 오랫동안 유통되고 널리 판매되었지만 현재 지면으로 전해진 자료로는 편집자인 왕허의 ‘후기’를 제외하고 1941년 8월 신경(新京)의 『대동보(大同報)』에 실렸던 커명(克名)의 짧막한 글 「朝鮮短篇小說 上, 下」(8월 5일, 8일), 그리고 같은 해 10월 첸인이 『성경시보(盛京時報)』에 3회에 걸쳐 게재한 감상문 「朝鮮文學略評-朝鮮短篇小說選」이 전부이다. 이 몇몇 안 되는 글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사는 지식인들이 조선문학과 조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우선 커명의 『朝鮮短篇小說 上, 下』에 대해 살펴보자. 약 1000자 정도의 짧은 이 글은, 더 정확히 말하면, 『朝鮮短篇小說選』의 홍보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글의 서두에서 커명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작품들은 읽을 만하지만, 이들 작품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어느 부분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조선문학을 굳이 찾아 읽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어느 부분에 대한 반성’은 문맥상 다소 모호하고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듯 보이나, 당시 ‘1941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망국의 고통을 망각하는

25) 왕허(王赫), 『朝鮮短篇小說選』 후기 중에서.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어서 커명은 조선 문화에 대한 중국인의 무지함을 반성하며 『朝鮮短篇小說選』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예전의 우리는 조선의 문화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마치 러시아 문학의 위대한 빛을 발견하기 전에는 거기에 그렇게 찬란한 문화가 있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과 같다. (중략) 현재 신시대에 의하여 『조선단편소설선』이 출판되었다... 여기(조선문학작품--역자)에는 영국인, 미국인들이 생각치도 못하는 제재가 있고 백인종보다 숭고한 정신이 있다. 비록 겨우 8편에 불과하지만 독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중략) 이 소설들을 읽어보면 그 누구도 예전의 안광으로 백의의 민족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중략) 어느 한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의 운명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운명은 곧 고민으로 죽도록 억눌려 사는 운명이다.”²⁶⁾

관내의 지식인들이 『산령(山靈)』을 읽고 강한 공감과 연대감을 느낀 것처럼, 커명 또한 조선 작가들의 소설에서 ‘공동의 운명’을 발견하였다. 그는 중국과 조선을 동일한 동방의 존재로 간주하며, 비슷한 운명에 처한 두 민족을 서양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자 하였다. 이는 ‘약소민족’ 간의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던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추구한 세계주의적 사유를 반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커명의 글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가 『朝鮮短篇小說選』의 작품을 통해 장혁주 이외의 조선 작가들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점이다.

“장혁주 한 사람만은 조선문학을 대변하기가 어렵다. 장혁주보다 더 위대한 인물도 많을 것이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심도 주지 않

26) 커명(克名), 『朝鮮短篇小說 上,下』, 『大同報』, 1941.8.5.

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펜으로 자신들만의 문학을 생산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²⁷⁾

위만주국에서 이루어진 조선문학 번역 작업은 1930년대의 번역 활동과 비교해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번역 작품의 다양성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장혁주’에만 주목했던 중국 지식인들이 이제 장혁주를 넘어 보다 다양한 조선문학 작품들을 발견하며 조선문학의 전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대 지식인 첸인의 글을 통해 잘 드러난다.

1941년 10월, 첸인은 조선문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개인적인 텍스트 읽기’ 방식으로 『朝鮮短篇小說選』에 대한 감상문을 발표하였다. 첸인의 감상문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위만주국에서 활동하던 중국 지식인이 조선문학을 독립적 ‘타자’로서 진지하게 접근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조선문학의 중국적 수용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만하다.

첸인은 『朝鮮短篇小說選』에 수록된 8편의 작품에 대해 각각 소감을 밝혔다. 특히 호평을 받은 작품은 장혁주의 「이치산」, 유진오의 「복남이」, 이태준의 「까마귀」이며,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은 김동인의 「붉은 산」, 이효석의 「돈」, 장혁주의 「산양개」 등이다.

우선, 「이치산」에 대해 첸인은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이야기가 매우 짜임새 있게 전개되어 작가의 세련된 글쓰기 능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독자의 흥미를 충분히 끌 수 있다”고 극찬하였다. 이어서 유진오의 「복남이」에 대해서는 “인성(人性)을 읽어냈다”고 평가하며, “복남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구박하고 학대한 주인조차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위대한 인성을 드러낸다”고 언급했다. 이 평가가 한국 논자들의 의견과 일치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²⁸⁾ 뿐만 아니라 유진오의 글쓰기에 대

27) 커명(克名), 위의 글.

28) 공영란은 이 작품이 “조선의 기층 민중인 노복에게서 발견되는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가치에 초점

해서도 첸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물을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낸 점은 작가의 글쓰기가 매우 성공적임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러한 첸인의 평가는 그가 인류 보편적인 정감이나 일반인들의 인성을 다룬 사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을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첸인은 이태준의 「까마귀」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까마귀」는 이태준의 초기 대표작으로, 고풍스러운 언어와 어두운 이미지들로 죽음과 사랑의 허무함을 표현하며, 마치 한 편의 우울한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 1930년대 대표적인 순문에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첸인은 이 작품에 대해 “비범한 작품”이라고 단언하며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누구도 붙잡지 못했던 희귀한 ‘괴물’을 잡아 소중한 시도를 하였다”고 이태준의 글쓰기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작품에 내재된 ‘암울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이 작품을 읽는 내내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작품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또한, 주인공과 폐병에 걸린 여인의 모습을 각각 분석하면서, 작가가 다양한 이미지로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숨 돌릴 틈 없이 끝까지 읽을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까마귀」의 이야기 구조와 심리 묘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는 달리, 첸인은 김동인(1900~1951)의 「붉은산 - 어떤 의사의 수기」에 대해 특별히 혹평을 내렸다. 이 작품은 위만주국에서 발행된 문예지 『작풍(作風)』²⁹⁾에 실린 후 왕허에 의해 단행본에 수록되었다. 김동인의 작품 세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붉은산 - 어떤 의사의 수기」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작품은 ‘만보산 사건’ 발생 1년 후 일제의 이간과 종용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반중 풍조’

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고영란, 「유진오 작 ‘여름’과 ‘복남이’ 소고」, 『외국학연구』 18, 2011, 331쪽.

29) 1940년에 창간된 이 잡지는 제1기만 냈다가 정간되었다. 이유는 민족적, 반항적 정신을 고취하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제1기는 ‘문학작품번역’ 전문호로 여러 나라 현대문학작품의 번역본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붉은산」 이외에도 이효석의 「돈」과 이광수의 「가실」이 있다. 謝琮, 「偽滿洲國‘作風’雜誌及朝鮮文學翻譯」, 『杭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호, 2015, 65쪽.

가 심화되던 시기에 창작된 것이다.

김동인은 만주 거주 경험이 없었으나, 당시 신문 보도와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약 3,000자 분량의 이 단편소설을 집필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작품이 수용 환경과 독자의 시선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 작품은 중국인 지주와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어 일본 당국의 술책에 부합하며, 일제의 음모와 야망을 지지하는 작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³⁰⁾ 반면, 조선인 독자들에게는 민족적 정서를 고취하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합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위만주국에 거주하던 중국 문인들 사이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풍(作風)』 잡지의 편집자는 이 작품을 “반전(反戰), 반약탈의 주제를 다루며 유랑민의 가난한 삶을 형상화하는 작품”으로 평가하면서도,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갈등을 오히려 간과하고 있었다. 이는 『작풍』 잡지가 기획한 ‘문학작품 번역 전문호’의 의도(전쟁, 약탈, 추방 등을 반영함)와 관련이 깊었다. 그러나 『작풍』의 편집자가 일부러 무시한 요소는 첸인에 의해 재조명되어, 이 작품에 대한 혹평의 이유가 되었다. 첸인은 이 작품에 대해 “꽤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반 중국 독자의 입장에서 작품 내용에 대한 불만을 솔직히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가 철렁거리는 압록강을 건너 이곳에 전해졌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에 대한 불만을 금할 수 없다. (….) 두 민족(중국과 조선)이 본래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데, 왜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소설을 썼는가? 이에 대해 놀라움과 불해(不解)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첸인은 이 작품의 창작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이 작품은 아마도 작가가 특정한 명령을 받고 창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작품을 실패작으로 단정하며, 그 이유로 작가가 관련 자료를 대

30) 謝琮, 위의 글, 70쪽.

충 수집하여 억지로 써내려갔기 때문에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작가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편협한 민족주의 틀에 얽매어 있다”고 작가 자체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첸인은 중국과 조선을 동병상련의 운명공동체로 인식하는 입장에서, 작가 김동인이 만주 지역에서 존재하는 중국인 지주와 조선 소작농 사이의 분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며 민족 간 갈등을 조장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라는 한계를 지닌 인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첸인의 글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그가 작품에 대한 소감을 밝히면서 번역의 문제 역시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광수의 「가실」을 평가할 때 그는 번역문의 문장이 서투고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에 대해 “번역자의 번역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이처럼 작품을 읽고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고, 부정적인 점이 보이면 솔직하게 비판하며, 번역 텍스트임을 염두에 두고 번역문의 품질까지 검토하는 그의 태도에서 독자이자 평론가로서 첸인의 진지함과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첸인은 저자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번역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의 평론에는 주관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론을 통해 위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중국 지식인들의 조선 작가와 문학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위만주국’이라는 특수한 문학장에서 조선문학이 수용된 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3. 결론: ‘발견’에서 ‘포용’까지

“조선이 가자(箕子)의 후예 여부를 막론하고 또 그가 예전에 중국의 부속국이었는지 여부도 상관없이, 그 역사적 지위를 말하자면 중·일 사이에 양국의 문화를 전달함으로 동아문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조선

또한 일본 못지않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나는 이 기회에 조선의 예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앞으로 누가 (조선)의 아름다운 조각과 회화 작품을 중국인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기 인용문은 저우쥘런(周作人)이 1925년에 잡지 『語絲』에 세 편의 조선 전래동화를 게재하면서 조선과 조선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토로한 것이다. 저우쥘런의 이 글 중에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즉 비록 아직까지 낯설고 많이 알지 못하였지만, 당시의 중국 지식인은 기존의 소위 ‘중화주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조선을 하나의 독립적인 ‘타자’로, 조선의 예술을 “경의를 표할만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우쥘런의 견해는 자신의 탈정치·탈민족적인 문학관과 무관하지 않았지만, 조선문화(물론 문학도 포함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민족문화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의 인식과 태도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 지식인 가운데 분명히 적지 않게 존재하였던 것이다. 멀리서 찾을 것 없고 그의 친형인 루쉰(魯迅)도 1933년에 조선기자 신언준의 인터뷰를 받았을 때 “조선의 문사 가운데 누군가가 조선문학을 소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조선문학에 대한 관심을 명확하게 표명한 바 있었다.³¹⁾

물론 정치적·군사적 환경과 언어의 장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조선문학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접근은 쉽지 않았으나, 1930년대에 들어서 좌익 진영의 번역 작업을 통해 점차 실현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는 특수한 정치·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 무산계급 운동과 프로문학의 성행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접근은 초기부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약소민족, 프로문학의 번역’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된 조선문학의 중국어 번역과 수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필요를 넘어 ‘문학’ 자체로의 복귀 양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문에서 다루는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남긴 글들을 통해, 그들이 조선문학 작품을 꼼꼼

31) 신언준, 「중국 대문호 노신방문기」, 『신동아』 4월호, 1934, 29~31쪽.

히 읽고 작품에 내포된 문학성과 예술성을 진지하게 논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36년 『삼천리』지에서 실시한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광수는 김동인의 「감자」 등을 예로 들며 조선문학이 서양 일류 작가의 작품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조선문학이 전체적으로는 세계 문학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박영희, 유진오, 김억, 임화 등 다른 지식인들로부터도 나왔다.³²⁾ 그러나 같은 해에 중국 좌익 지식인 저우강명은 장혁주의 「산령」을 읽고, 이 작품이 국제 문단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 높은 소설이라고 평가하며 장혁주의 작품이 세계적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찬사하였다.³³⁾ 1939년에는 중국 좌익 시인 후명쑤(胡明燾) 역시 조선문학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하였다.³⁴⁾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저우강명과 후명쑤가 말하는 ‘세계’는 “조선 민족해방의 외침”³⁵⁾이 가능한 세계이며, 세계 각 민족이 연대와 평등을 추구하는 세계로서, 그 속에는 중국과 조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가 본격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이며,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에서 ‘세계문학’에 대한 인식도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국제 무산계급 운동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과 중국의 지식인들은 각기 나름의 ‘세계문학’을 구상하였고, 그 구상 속에 조선문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나라가 구상한 ‘세계문학’의 의도와 의미는 다르며, 그 속에서 조선문학의 위치와 위상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 지식계는 새로운 세계사적 질서를 모색하면서 ‘중심-지방’ 구도를 염두에 두고 조선문학을 하나의 지방문학(식민지 문학)으로 자신의 ‘세계문학’ 체계에 편입시키려 하였

32) 이광수, 임화, 김억 등,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관」, 『삼천리』 제8권 제4호(1936), 308, 311, 325쪽.

33) 周剛鳴, 「『山靈』」, 『讀書月刊』 제4권 제7호, 1936, 365쪽.

34) 胡明燾, 「從歷史與文學看朝鮮」, 『東方戰友』 제6호, 1939, 3쪽.

35) 胡明燾는 장혁주의 소설에서 ‘조선 민족의 소리없는 외침’을 읽어냈다고 서술한 바 있다. 胡明燾, 위의 글, 같은 쪽.

다. 반면, 당시 중국 문단의 주류를 이루던 좌익 지식인들은 약소민족과 프로문학의 번역을 통해 중국 내 계급 문제를 초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만국 프롤레타리아의 연대’에 주안점을 두고 세계문학을 구상하며, 조선문학을 이 체계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중국 지식인들이 전근대적 의식을 벗어나, 조선문학을 하나의 독립적인 민족문학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문학을 번역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조선과 조선인을 운명공동체로서 ‘포옹’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발견과 포옹’은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조선문학 번역이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胡 風, 『山靈-朝鮮臺灣小說集』, 文化生活出版社, 1936.4.

王 赫, 『朝鮮短篇小說選』, 長春新時代社, 1941.

2. 한글저작 및 논문

고영란, 「유진오 작 ‘여름’과 ‘복남이’ 소고」, 『외국학연구』 18, 2011.

김장선,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의 장혁주 작품 번역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제51집, 2016

_____, 「만주국 문학장에 이입된 조선문학 - ‘조선단편소설선’ 출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62집, 2019.

김주현,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 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81호, 2017.

신정호 · 이등연 · 송진한, 「조선 작가 소설과 중국 현대문단의 시각」, 『중국소설논총』 제18집, 2003

신선옥, 「민국시기 중국에서의 조선문학 비평 양상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56집, 2018.

_____, 「範泉의 조선문학 비평 연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4호, 2019.1

신언준, 「중국 대문호 노신방문기」, 『신동아』, 1934.4월호,

이동매 · 왕염려, 「번역사회화시각에서 본 중국에서 장혁주문학의 번역 및 수용양상-부르디외의 사회학이론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30권 1호, 2022.

이광수 · 임화 · 김익 외,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관」, 『삼천리』 제8권 제4호, 1936.

최창록 · 조영추, 「개벽사 “중국단편소설집” 번역자 소고」, 『대동문화연구』 116권, 2021.

한인혜, 「일제 강점기 중국에서 번역된 조선 문학 - 중화적 세계문학 개념과 조선 문학의 위치」, 『비평문학』 24호, 2017.

3. 중국어 저작 및 논문

陳獨秀, 「太平洋會議與太平洋弱小民族」, 『新青年』 제9권 제5호, 1921.

胡明樹, 「從歷史與文學看朝鮮」, 『東方戰友』 제6호, 1939.

蔣 蕾, 「東北淪陷區中文報紙:文化身分與政治身分的分裂——對偽滿《大同報》副刊叛離現象的考察」, 『社會科學戰線』, 2010.

克 名, 「朝鮮短篇小說 上,下」 『大同報』, 1941.8.5.

劉曉莉, 「東亞殖民主語與文學--以偽滿洲國文壇為中心的考察」, 『學術月刊』 47, 2015,

金柄珉 · 李存光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6) : 翻譯篇》, 吉林:延邊大學出版社, 2014.

金柄珉 · 李存光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10) : 評論篇》, 吉林:延邊大學出版社, 2014.

蕭 紅, 『感情的碎片』, 內蒙古人民出版社, 1999.

謝 琮, 「偽滿洲國 ‘作風’雜誌及朝鮮文學翻譯」, 『杭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호, 2015.

周剛鳴, 「『山靈』」, 『讀書月刊』 제4권 제7호, 1936.

‘Discovery and Embrace’: Chinese Intellectuals’ Perspectives on Early 20th Century Korean Modern Literature

Focusing on the Translated Fiction Collections “山靈-朝鮮臺灣小說集”
and “朝鮮短篇小說選”

WANG YANLI*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scourses of Chinese intellectuals on Korean modern literary works translated during the 1930s and 1940s, aiming to shed light on their perceptions and reflections on Korean literature in the modern era. At that time, Chinese intellectuals, through the translation of literature from “minority nations” and proletarian works, recontextualized domestic class issues as transnational concerns. In their pursuit of solutions, they emphasized the “solidarity of the global proletariat”, envisioning a world literature that incorporated Korean literature.

In this process, Chinese intellectuals broke away from premodern perceptions and “discovered” Korean literature as an independent national literature. Furthermore, through the translatio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they sought to “embrace” Korea and its people as a shared community of destiny. This dual process of “discovery and embrace” reveals the significant role that Korean literary translations played in early 20th century China.

Key words: Modern and Contemporary Novels of Joseon (Korea); Chinese Translation ;
Sun Ling - Collection of Joseon(Korean) and Taiwanese Novels ;
Joseon(Korean) Short Stories Selection

논문투고일 : 2024년 10월 3일 || 심사완료일 : 2024년 11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1월 21일

* (JI L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